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이집트의 한국어 하이브리드
러닝

التعليم الهجين للغة الكورية في مصر في ظل عصر ما بعد الكورونا

Dr. Sarah M. Benjam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Faculty of Al-Asun, Ain Shams University

د. سارة ماجد بنيامين

مدرس بقسم اللغة الكورية

كلية الألسن، جامعة عين شمس

Hybrid Learning of Korean Language in Egypt in the Post Covid Er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ybrid learning, which combines the traditional face-to-face education and digital learning tool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gypt to provide learners with more options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ffline language learning outside the country of the target language in the post-Covid era. A survey was conducted on 18 faculty members who experienced both offline education and hybrid learning at A-university in Egypt to investigate their digital tool usage frequency, perception and satisfaction rate in hybrid learning as well as the obstacles they faced with students during the hybrid educational process.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faculty members prefer hybrid learning to the traditional face-to-face educational system. However, there were strong limitations to the educational process, especially with the lack of virtual interaction and poor infrastructure.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ai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hybrid learning and overcome its limitations in the future.

Keywords: Korean language in Egypt, Hybrid learning, Digital learning, Post Covid Era, Korean education for foreigners.

التعليم الهجين للغة الكورية في مصر في ظل عصر ما بعد الكورونا

الملخص:

تهدف هذه الدراسة إلى التحقق من جودة التعليم الهجين، الذي يجمع بين التعليم الأرضي وجها لوجه والتعليم الإلكتروني الافتراضي، في تعلم اللغة الكورية في مصر، مما يتيح لدارسي اللغة الكورية من المصريين مزيدا من وسائل التعليم الحديثة؛ للتغلب على قيود تعلم اللغات الأجنبية في دول أجنبية بوسائل تعليمية حديثة مواكبة لعصر ما بعد فيروس كورونا المستجد. وتم إجراء استطلاع رأي على ١٨ عضو من أعضاء هيئة تدريس اللغة الكورية ذوي الخبرة في التعليم الهجين بالجامعة "أ" بمصر، للتحقق من معدل استخدامهم للأدوات الرقمية ومستوى إدراكهم ومدى رضائهم عن الوسائل التعليمية الإلكترونية في التعليم الرقمي والعقبات التي واجهوها مع الطلاب في أثناء عملية التعليم الهجين. وقد أظهرت النتائج أن معظم أعضاء هيئة التدريس يفضلون التعليم الهجين على النظام التعليمي التقليدي وجها لوجه. ومع ذلك، كانت هناك بعض الصعوبات في العملية التعليمية، خاصة قلة التفاعل الافتراضي وضعف البنية التحتية. وبناءً على النتائج، هدفت الدراسة إلى اقتراح طرق لتطوير التعليم الهجين والتغلب على نقاط ضعفه في المستقبل.

الكلمات المفتاحية: اللغة الكورية في مصر، التعليم الهجين، عصر ما بعد الكورونا، التعليم الإلكتروني، تدريس اللغة الكورية للأجان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이집트의 한국어 하이브리드 러닝

1. 서론

20년 전만해도 이집트에서 한국어학과가 없었으며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많이 없었다. 한국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지경이었다. 이집트에서 한국어 정규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대한 의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과 한국어, 한국 문화와 한국 한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05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집트의 A-대학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면서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한국어를 전파하는 역할을 이끌어 간다. 한국인으로부터 한국어와 한국 문학, 역사, 통·번역 등의 과목을 수강하면서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여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16년간 이집트에서의 한국학, 한국어 교육을 주도한 A-대학교 한국어학과가 2020년 3월에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됐다. 약 2년 간 기존 강의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수강생 출석에서부터 화상 강의, 과제, 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대학원도 마찬가지로 강의 및 논문 지도까지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어 교육에 있어 디지털 러닝이 중요한 교육 기술이 되었으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도 디지털 러닝과 전통 교육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러닝이 기본적 교육 기술이 되었다.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어학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직면과 동시에 한국인 교수진이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한국 지원으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아랍권 학생들이 지난 2년간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대학교 한국어학과가 늘처럼 한국어 전공자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비해 디지털 러닝을 활용한 강의 준비에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유되는 것으로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이동하는 커다란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Allen & Seaman, 2010).

특히 반 이상의 대학 교수자들은 한번도 디지털 러닝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Jaschik & Lederman, 2018).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비실시간 강의와 비대면/대면 실시간 강의를 비교해 보면 방인자(202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는 시간·장소 자유로운 반면, 실시간 강의는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수진 입장에서는 처음에 디지털 도구 사용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사용하다 보면 수업 이후에는 수업만족도가 높았고 다음 수업 준비에는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최정선, 권미경 & 최은경, 2020)

지금까지 온라인/하이브리드 러닝을 관한 학습자들 관점에서의 만족도나 선호도 등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됐지만 교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임희주 & 박성만, 2021). 본 연구에서 이집트의 A-대학교 한국어학과를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 때 투자한 디지털 러닝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활용하는 한국어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러닝 방안과 강의 내용 및 보완점을 살피고자 한다.

2. 본론

2.1. 대면 오프라인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의 병행 과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시대로 돌아가보면 2020년 3월에서 2022년 7월까지 약 2년간 세계 곳곳에 교육 기관이 비대면 교육으로 변했다. 캠퍼스는 비어 있지만 온라인 강의실은 가득 찼다. 대면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언어 교육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A-대학교의 언어대학 한국어학과가 언택트 시대로 급격히 변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대로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위해 언어대학이 어학, 문학, 통·번역 3개의 전공분야의 온라인 교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별도의 포털을 구입하여 과목별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리고 17개 학과의 700여 명의 교수진들이 포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 전공별 과목별 온라인 콘텐츠를 가을 학기 시작하기 앞서 모두 포털에 올렸다. 그러므로

교수진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이용욱, 2018; 심선향, 2021).

다음 5 가지의 사항으로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했다.

1. 주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모든 교수진에게 소개되었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모두 학교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마련했다. 그리고 학교 메일로, 학교 포털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

2. 교수진은 대학 포털에 있는 BigBlueButton, Turnitin, Wiki 등의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권유했으며 사용법을 모르는 학생이나 교수진에게 훈련시켰다.

3. 학과별로 온라인 교육 전문 팀을 구성하여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직면하는 온라인 문제점을 급격히 해결하고 전자기기, 교육 플랫폼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4.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대학 본부가 과목 계획서와 강의 자료 및 콘텐츠를 확인한 다음 포털에 올린다. 교수진이 12 주의 온라인 강의 자료를 모두 올린다. 포털에 들어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할 때, 전자 교재 (e-book), 온라인 설명을 포함한 강의(lesson), 전문 용어 및 어휘집 (glossary),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포럼(forum), 연습 문제의 Q-bank 를 이용한 온라인 퀴즈(online quiz), 오프라인 과제(offline quiz), 정보집(wiki), 외부 자료의 링크(url) 등으로 과목별과 가장 적절한 4-5 개의 도구를 이용한 온라인 콘텐츠를 올린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한 후 실시간 화상 강의를 BigBlueButton 이나 Zoom 을 이용하여 학생들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

5. 온라인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 때문에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대비했다. 학생 관리 팀을 구성하여, 학교 포털, 교육 플랫폼 등의

사용법에 대한 훈련을 시켰고 형편이 어렵거나 인프라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욱 더 신경썼다.

한국어학과도 역시 위에 언급한 5 가지의 사항을 지키면서 약 2 년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곧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러닝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하이브리드 수업과 관련한 용어는 ‘온라인 러닝, 병행 수업, 혼합 수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다(고혜민 & 조현용, 2023:5). Blake(2011)의 정의에 따르면 교수활동이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수업의 형태를 ‘하이브리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Blake(2011)의 정의에 따라 면대면 수업을 하면서 디지털 러닝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강의를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 속 약 2 년간 준비하고 의존했던 디지털 러닝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지만 기존의 종이책, 페이퍼 과제 등을 디지털화시켜서 강의 자료, 활동, 교재, 과제 등이 온라인 디지털 러닝으로 진행된다. 곧 디지털 리터러시 없는 시대에서 대면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러닝 시대가 되었다.

2.2.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한 한국어 교수진 만족도와 보완점 조사

2.2.1. 참여자와 설문지 절차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A-대학교 한국어학과 한국어의 하이브리드 러닝 현황, 한국어 교수진의 디지털 러닝 도구 사용 빈도 및 만족도와 보완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대학의 교수나 교수요원이며, 분석 대상은 A-대학교 18명이다. 연령으로는 20대 11명(61.1%), 30대 6명(33.3%), 50대 1명(5.6%)이며, 국적은 이집트인 17명(94.4%), 한국인 1명(5.6%)이다. 참여자들의 전공은 어학 16명(88.9%), 문학 1명(5.6%), 통·번역 1명(5.6%)이다. 온라인 교육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응답은 6개월 3명(16.7%), 1년 12명(66.7%), 2년 3명(16.7%)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 도구인 구글설문지(Google Survey)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구성하는 데 이용상 & 신동광(2020) 논문의 설문지를 참고했다. 설문지에는 교수진이 운영하는 디지털 러닝 도구 형태와 온라인 수업의 질 차이와 그 원인, 온라인 수업을 선호한다면 그 이유,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보완점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항별로 기초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러닝 현황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진의 인식, 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러닝의 보완점에 대한 교수진의 의견, 그리고 앞으로 교육 방식이 전통적인 대면 교육으로 돌아갈지, 하이브리드 러닝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하이브리드 러닝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2.2.2. 연구 결과 분석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이 담당하는 과목을 살펴보았다. 참여자는 여러 과목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 주요 과목인 산문, 문법, 통번역이 각 9명(50%)이 가르쳤으며 그다음으로 회화 5명(27.8%), 에세이 3명(16.7%), 역사 3명(16.7%)이었다.

참여자들은 운영하는 수업의 대면/비대면 비율을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참여자 9명(50%)이 대면 수업 50%로, 비대면 수업(50%)로 해서 하이브리드 러닝 방식을 주로 진행했다. 이어서 참여자 4명(22.2%) 비대면 수업 100%로 진행한다고 했고 2명(11.1%)은 대면 수업만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기타 비율은 3명(16.7%)이었다. 이 디지털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전통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비율은 11.1%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수진은 88.9%로 온라인 디지털 러닝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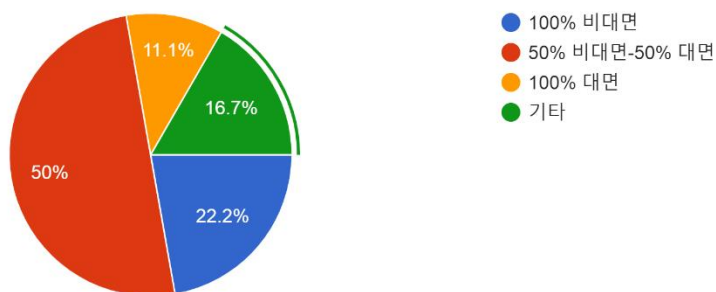


그림 1 수업의 대면/비대면 비율

온라인 수업 형태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했다. 그 중에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이 **BBB**, 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등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55.1%), 그 다음으로 동영상 강의 없이 과제물 중심의 수업(20.6%)을 진행했다. 이어 교수자의 강의를 녹화한 동영상 강의 형태(10.3%), 기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수업(6.8%) 등이 있었다.

내용	N	퍼센트
1. 실시간 화상 강의(예, BBB, 줌(Zoom), 팀즈(Teams) 등)	16	55.1
2. 교수자의 강의 영상을 활용한 동영상 강의	3	10.3
3. 교수님의 강의를 아닌 기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	2	6.8
4. 동영상 강의 없이 과제물 중심의 수업	6	20.6
5. 기타	2	6.8
계	29	100.0

<표2> 온라인 수업 형태

참여자들에게 전공 분야별 디지털 러닝 만족도에 관하여 문의했을 때, <표 3>에서 나온 바와 같이 언급했다. 어학(문법, 회화, 등)의 디지털 러닝 만족도 평균은 (2.3)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통.번역의 만족도 평균은 (3.0)로 나타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문학 (산문, 역사, 문학사 등)의 만족도는 (2.9)로 나타나, 문학과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참여자들이 어학 과목을 디지털 도구로 가르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전공 분야	만족도 평균
1.	어학(문법, 회화)	2.3
2.	문학 (산문, 역사, 문학사 등)	2.9
3.	통.번역(아.한 번역, 한.아 번역)	3.0

<표 3> 전공별 디지털 도구 사용의 만족도 평균

전공 분야별 만족도와 같이 질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조사했다. 이에 참여자들이 분야에 따라 수업의 질 차이를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러닝을 활용한 강의의 질 차이 원인을 다음 <표4>에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러닝의 질 차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학생의 디지털 러닝의 참여도 차이(22.9%)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강의실이 아닌 자택이나 카페 등의 학교 분위기를 지니지 않는 장소에서 디지털 자료나 온라인 콘텐츠를 받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온라인 강의의 경우 내용 듣기에 관심을 잃게 된다. 그 다음으로 수업 내용과 디지털 러닝 방식과의 적합도 차이(21.3%)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문학과 같이 이론이나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는 과목들은 디지털 러닝으로 가르칠 수 있으나 문법, 회화 등의 실습이 많이 필요한 어학 과목들은 대면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통번역도 마찬가지로 유형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19.6%)로 인해 학생들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인터넷 속도/인프라

상태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대로 듣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 평가방식(13.1%)도 역시 디지털 러닝 질의 요인 중 하나 될 수 있다. 이외 교수자의 강의의 디지털 콘텐츠를 준비 정도의 차이나 교수자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 온라인 수업 방식의 차이 (예: 실시간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등)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내용	N	퍼센트
1.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	12	19.6
2.	교수자의 디지털 콘텐츠 준비 정도의 차이	4	6.5
3.	교수자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	4	6.5
4.	수업내용과 디지털 러닝 방식과의 적합도 차이	13	21.3
5.	온라인 수업 방식의 차이 (예: 실시간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등)	6	9.8
6.	온라인 콘텐츠에서 평가방식의 차이	8	13.1
7.	학생의 디지털 러닝 참여도 차이	14	22.9
	계	61	100.0

<표 4> 디지털 러닝의 질 차이 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온라인 교육으로 병행한 교수진들이 그 익숙하지 않은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망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참여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이브리드 러닝을 적용하면서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 디지털 러닝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표 5>에서 보이듯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프라 부족(22.9%), 학생과의 상호작용 부족(22.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디지털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낮은 친숙도(14.7%)와 학생 간 상호작용 부족(14.7%), 실습 부재(13.1%)가 뒤를 이었다.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의 능력 부족(9.8%)이나 증가된 과제 체점량(1.6%)이 가장 낮았다.

	내용	N	퍼센트
1.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인프라	14	22.9

부족(인터넷 속도, 컴퓨터 등)			
2.	학생과의 상호작용 부족	14	22.9
3.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 부족	6	9.8
4.	실습 부재	8	13.1
5.	디지털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낮은 친숙도	9	14.7
6.	학생 간 상호작용의 부족	9	14.7
7.	증가된 과제 체점량	1	1.6
계		61	100.0

<표 5> 디지털 러닝에 대한 불만 사항

디지털 러닝을 활용한 수업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장점도 있다. 교수자들이 디지털 러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의했을 때 다음 <표6>와 같이 응답했다. 29.4%의 응답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문제를 온라인 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고 수업 진도가 지연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25.5%의 응답률이 학생이 교수자의 의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 시도 및 책임감 강화하다는 점을 선택하였으며, 모바일 디바이스의 활용 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응답률이 19.6%에 달하였다.

	내용	N	퍼센트
1.	모바일 디바이스의 활용 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음	10	19.6
2.	디지털 러닝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절감 (교통비 등)	5	9.8
3.	디지털 러닝에 대한 친숙도(선호도, 흥미도 포함)	0	0.0
4.	학생과의 비접촉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편의성	0	0.0
5.	학생 간의 비접촉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편의성	2	3.9

6.	반복적 학습의 가능 및 편의성	6	11.7
7.	전염병 등의 위생문제 해결	15	29.4
8.	학생이 교수자의 의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 시도 및 책임감 강화	13	25.4
계		51	100.0

<표 6> 디지털 러닝에 대한 선호 사항

2.3. 디지털 러닝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러닝에 대한 보완점

마지막으로 교수진에게 코로나19 때 비대면 강의만 시행한 2년간의 온라인 수업을 바탕으로 현재 하이브리드 러닝을 시행하면서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제안이나 보완점을 문의했을 때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터넷 인프라 개선과 온라인 교육용 자료와 평가 방식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인자(2020)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시간 수업은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디지털 러닝의 도구를 활용하면 피드백을 즉각적인 어려움으로 학습자들에게 효율성이 있는 온라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방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능력 차이에 인해 디지털 과제나 자료를 이용할 때 실력 차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러닝을 진행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하지 않는 디지털 인프라 때문에 박은경(2020)과 이용상·신동광(2020)에 보도한 바와 같이 컴퓨터 오류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인해 디지털 러닝에 대한 학생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교수진 상호작용과 교수진의 강의 준비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러닝이 지속될 것인지 대면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대부분의 참여자 응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계속 병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하이브리드 러닝에 적합한 전공 분야별 맞춤형 학습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포털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면서 하이브리드 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A-대학교 언어대학 한국어학과의 현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한국어의 하이브리드 러닝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했고 A-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진을 상대로 디지털 러닝 상황과 만족도 및 보완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하이브리드 강의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어학, 문학, 통·번역의 과목 분야에 따라서 수업의 질에 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어학과 같은 분야는 디지털 러닝 위주의 강의보다 오프라인 강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수업의 질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교수진이 응답한 것은 학생의 디지털 러닝 참여도 차이였으며, 다음으로 수업내용과 디지털 러닝 방식의 적합도 차이나 학생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의 차이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교수진이 직면하는 어려운 사항이 학생의 수업 참여도로 나왔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인해 학생들이 강의실 환경을 떠나, 자택, 카페, 작업실 등의 교육 환경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향이 하이브리드 러닝으로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교수진이 디지털 러닝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시간과 장소 제한이 없는 것, 코로나 19 와 같은 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 것, 학생이 교수자의 의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 시도 및 책임감 강화 등이다.

물론 디지털 러닝의 단점도 있다.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교수진은 인간관계, 서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것은 디지털 러닝의 가장 큰 단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나 인터넷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저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 효율성이 있는 온라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디지털 방안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교육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교수진에게 문의했을 때,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러닝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대면 오프라인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전공분야별 온라인 맞춤형 학습 자료 및 전자교재 개발이 향후 과제이다.

참고문헌

- 고혜민 & 조현용. (2023). 한국어교육에서의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91, 1-41.
- 박은경. (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교양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인식조사. *멀티미디어언어교육*, 23(3), 320-338.
- 심선향. (2021). 비대면 교육 환경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활용 한국문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3, 119-139.
- 이용상 & 신동광. (2020). 코로나 19 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교육 실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23(4), 39-57.
- 임희주 & 박성만. (2021). 비대면 수업에서 대학 교수자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교양영어수업을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22(1), 203-220.
- 최정선, 권미경 & 최은경. (2020). 실시간 온라인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D 대학교 한국어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17(2),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247-278.
- Allen, I. E., & Seaman, J. (2010). *Learning on demand: Onlin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9. Newburyport, MA: Babson.
- Ain Shams University. (2022). "Ain Shams University Faces the Corona Virus". *Archived from the original* (2020). <https://www.asu.edu.eg/ar/428/page/ain-shams-university-faces-the-corona-virus>
- Blake, Robert J. (2011). *Current Trends in Online Language Learning*, United Kingdom: online b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schik, S., & Lederman, D. (2018). Inside higher ed's 2018 survey of faculty attitudes on technology. Inside Higher ED. Retrieved from <https://www.insidehighered.com/booklet/2018-survey-faculty-attitudes-technology>